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과 눈 맞춰요”

■ 한마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동호 소장
“보호받는 존재 아닌 함께하는 사회 만들어야”



항상 긍정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한마음자립생활센터 식구들. 왼쪽 아래 시계방향으로 김동호 소장, 이수양, 배한성, 정규태, 김한솔씨. /나눔기자 mja@kwangju.co.kr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반짝 관심을 보이고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광주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는 4만3천 718명(2004년 기준). 그러나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는 일은 흔하지 않다. 집 밖으로 나오기엔 사람들의 시선과 열악한 환경이 두려워서다.

한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동호(38)소장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김 소장은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기를 바란다. 장애인을 자주 보지 않아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동정합니다. 그러나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 얼마든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손이 안되면 발로 컴퓨터를 하고, 발을 막죠.”

김 소장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밖에 나올 수 있고, 그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날수록 환경도 개선되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김 소장 자신도 특수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지난 94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척수마비가 됐다. 처음에는 대·소변 가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절망감도 컸다. 갑자기 바뀐 환경은 그를 집에만 묶어뒀다.

복지관에서 편지기술을 배우는 등 변화를 모색하

던 그는 장애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4년 3월 ‘한마음 장애인 자립센터’를 세웠다. 현재 이 센터에는 김소장을 비롯해 7명의 식구들이 일하고 있다. 문화교육팀장인 이수양(여·26)씨를 제외하고 모두 장애를 가졌지만 센터는 큰 어려움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곳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장애인 야학’과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주말학교’,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폐컴퓨터·페토너 수거 사업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체험홈’ 설치. 체험홈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익혀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달말경 첨단지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체험홈’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소장은 진정한 자립은 ‘일’임에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2% 이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을 택하기 때문이다.

“고용이 되더라도, 수입이 생기면 수급권자는 보조금이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극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센터 운영과 체험홈 마련을 위해 형님의 집까지 담보로 잡고 일하고 있지만 김 소장과 한마음장애인 자립센터 회원들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기만 하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비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명(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모두 무급으로 일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체험홈 후원 및 폐컴퓨터·페토너 수거 문의 431-8025, 432-8025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종교칼럼



윤 빈 호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는 ‘케노시스’(Kenosis) 즉,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물하신 자기 비움의 하나님,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표로도 ‘빈무덤’을 보여 주심으로써 자기 비움의 철저함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나 제자들 편에서 보면 ‘빈무덤’ 사건은 가시관에 짓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스승을 목전에

봤고, 다시 살아남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면되거나 혹 셋이라도 동시 다발적으로 현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움’ 안에서 우리는 불교의 공(空)을 본다. 왜냐하면 불교의 공(空)도 아무것도 없다는 무(無)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존재적이고 조건적인 존재(緣起)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야경은 이 공을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 空即色)’ 즉, 있음이 없음이요 없음이 있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무한자)께서 인간(유한자)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色)이 되셨고 십자가에 고통과 허탈함으로 내몰았던 사건(空)을 통하여 모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色) 하시기 되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6일(일요일) 예수 부활 대축일은 철저히 자신을 비운 신의 자기계시의 다른 방편으로써 공(空)을 볼 수 있는 날이며,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다른 얼굴로써 공(空)을 보는 날이라 말할 수 있다.

<곡성본당 신부>

부활과 공(空)

두고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뼈아픈 사건이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가슴 아파할 겨를도 없이 스승님의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허탈함으로 내몰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빈무덤’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죽음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좁은 공간인 무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승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었다는 말이다.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남아 생

백선 바오로의 집
‘그림 흥 설립 자선음악회’

정신지체장애아동의 그림 흥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오는 20일 7시 광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신지체아동 생활시설인 백선 바오로의 집(시설장 정복남 수녀)에서 정신지체 장애 아동의 그림흥(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도와주는 곳) 설립을 위한 자선모금행사의 하나다.

‘사랑 한 걸음, 희망 한 걸음’ 공연 문의 943-3300, 3301

16일 부활절 기념
가톨릭 미사·개신교 예배

오는 16일 부활절을 맞아 가톨릭과 개신교는 각각 부활절 기념 미사와 예배를 갖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북동 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가 집전하는 부활절 미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개신교에서도 이날 오후 3시 광주 공원 광장에서 ‘생명과 화해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올린다.

광주 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식·축하공연·노래자랑 개최... 20일 시민회관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이 개국 11주년을 맞이해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 공원 내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희망의 방송, 청취자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하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

다. 1부는 개국 1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 2부는 애청자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노래자랑으로 진행된다.

불교방송 음악프로그램인 ‘음악의 마음’에서 예심을 통과한 15팀이 출연하고 입상자에게는 김지병장고와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 등

품직한 상품을 증정한다. ‘진짜 멋쟁이’의 트로트 가수 진국이씨가 사회를 보는 축하공연에는 ‘빠이빠이’의 소명, 민요가수 이예자, 오목대씨와 통기타 가수 주권기씨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밖에 방송 발전과 불법 흥포에 힘써온 향



림사 조실 천은 큰스님을 비롯한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생활정보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010-8427-9997 (유)홍길정 자동차 매매상사

다양한 자동차 광고와 부동산, 의료, 교육 관련 정보들이 포함된 생활정보 섹션.